

러시아 “쿠릴 4도는 우리 땅”

러시아가 러일 간 영유권 분쟁 지인 쿠릴 4개섬 (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 지난 2016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바라보고 있다

쿠릴 4도가 2차 대전 후 러시아 영토가 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영유권 문제에 쐐기를 박으며 일본을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및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유리 우사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지난 23일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에 “러일 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평화조약 문서에는 쿠릴 4도가 러시아 영토임을 일본이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사코프 보좌관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협력과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해, 경협 및 안보 등에서 일본과의 협력 자세를 나타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26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쿠릴 4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 열도 남단의 이투루프,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4개 섬을 지칭한다. 일본은 쿠릴 4도가 일본열도 북부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북방영토’로 지칭하며, 러시아 측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쿠릴 4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2차대전 종전 이후 70년이 넘도록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지난 2016년 12월 쿠릴 4도에서의 공동경제활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다. 일본은 공동경제활동을 시작으로 4개섬을 모두 반환받은 후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전략이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경계하고 있다.

이집트 국경 개방 가자지구 탈출 행렬

이집트가 국경을 개방하자 황폐한 가자지구를 탈출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월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23일 ‘국민일보’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가자지구와 이집트 간의 국경인 라파에서 주민들이 만원버스에 올라타고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지난 17일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는 라마단(이슬람 성월) 기간 동안 가자지구 접경 라파 검문소를 개방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구 3곳 중 하나다. 나머지 2개 국경 검문소는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다.

이집트 국경 개방은 가자지구 탈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드문 기회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2007년 국경을 봉쇄했다. 이후 매우 간헐적으로 열리는 국경을 넘으려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팔레스타인인이 수천명이었다고 WSJ는 설명했다. 요르단 등지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고도 이스라엘의 거부로 국경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미국 워싱턴DC와 비슷한 면적의 가자지구에는 약 200만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이집트 국경을 넘는 가자 주민은 새 일을 찾아 아주하려는 택시기사, 공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자녀에게 새로운 기

회를 주려는 아버지, 치료받으려는 환자 등 다양한 이유로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잇단 충돌로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했고 공공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가자 주민들은 이집트를 거쳐 터키, 알제리 등 제3국으로도 향하고 있다. 이들이 타국에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법학 공부를 위해 알제리에 가고 싶다는 카람 아부 에렌반(18)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총에 맞기도 한다”며 신변안전에 의문을 품었다. 그럼에도 일부는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WSJ에 말했다.

가자지구 정치경제학자 오마르 사반은 “가자에는 희망이 없다”며 “주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